

너무 예쁜 우리 언니

등록 2018.08.25 20:27:55



【금강산=뉴스시스】김진아 기자 =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날인 25일 오후 북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박봉렬(85) 할머니가 남측 동생 박춘자(77) 씨와 뽀뽀를 하고 있다. 2018.08.25.

bluesod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